K-사찰음식 맛과 마음, 유럽에 전하다

문화사업단, 佛파리 · 英런던서 '사찰음식' 행사

파리 만찬, 장인 여거 스님 맡아
'더덕 버무리' 인기, 참가자 호평
런던 르꼬르동블루, 한국문화원과
'한국 사찰음식 주간' 성공적 개최
명장 정관 스님 오찬 · 강연 진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찰음식 강연, 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10월 28, 29일 르꼬르동블루 런던캠퍼스에서 열린 채식전문과정 강연에서 사찰음식 장인 여거 스님과 수강생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 사찰음식의 맛과 철학이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사찰음식을 통한 불교 수행 정신과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 문화외교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대리대사 김병준) 초청으로 시작됐으며, 프랑스 미식가협회 사무총장 로랑 풀티에 뒤메닐(Laurent Poultier du Mesnil)과 파리 한식 레스토랑의 오너셰프 피에르 상 부아예(Pierre Sang Boyer) 등 현지 셰프 및 인플루언서들이 함께해 한국 사찰음식의 철학적 미학을 체험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한국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을 기념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지구의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의 만찬은 사찰음식 장인 여거 스님이 준비했다. 제주 더덕에 대추·포도 유차청을 곁들인 한국식 샐러드 '더덕 버무리'가 특히 인기였다. 참가자들은 "균형 잡힌 맛과 자연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송인 로랑 풀티에는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날의 사찰음식 경험을 소개할 계획임을 전했다.

프랑스에 이어 런던에서는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과 르꼬르동블루 런던(Le Cordon Bleu London)과 '한국 사찰음식 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문화사업단은 지난 2021년 4월 주영한국문화원, 르꼬르동블루 런던과 3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채식전문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 내 한국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외교를 이어 오고 있다.

런던 첫 일정으로 일화 스님은 주영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식과 사찰음식이 영국에서도 인기임을 실감하며, 선명상과 참선수행을 통한 마음공부와 건강한 사찰음식을 통한 몸건강의 조화를 교육·홍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선승혜 원장은 "영국은 차문화가 발달해 '다선일미(茶禪一味)' 수행 전통이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채식과 불교 철학, 문학에 대한 영국 현지의 높은 이해와 관심이 사찰음식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화답했다.

특히 10월 28일과 29일에는 르꼬르동블루 런던캠퍼스에서 일반인과 채식전문과정 수강생 대상 강연이 열렸다. 여거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 채식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라며 절제와 명상의 철학을 전했으며, 르꼬르동블루 런던 학장 에밀 미네프(Emil Minev)는 "사찰음식은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긴 문화예술이며 문화사업단이 추진하게 될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식전문과정을 1년 2코스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10월 31일 런던 중심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코드 바이 르꼬르동블루(CORD by Le Cordon Bleu)'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만든 요리가 오찬으로 제공됐으며 11월 1일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정관 스님의 '음식명상(Food Meditation)' 강연이 진행됐다.

11월 3일에는 르꼬르동블루 런던에서 16명의 언론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관 스님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관 스님은 시그니처 메뉴인 표고버섯 조청조림과 감말랭이 고추장 무침을 시연했다.

일화 스님은 "인류 평화와 지구 건강을 함께 회복하는 수행문화로서의 사찰음식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 간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풍철 사찰 방문 시 관람예절 지켜 주세요"

국가유산청, 관람예절 캠페인 운영
문화유산관람료 감면에 방문 증가
유산 보존 관리 어려움 따른 조치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과 사찰 방문객들에게 관람예절을 요청하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단풍철 문화유산 관람 성수기를 맞아 국가유산청 소식지 〈국가유산사랑〉 11월호와 국가유산청 누리소통망(SNS), 네비게이션 앱 T맵을 통해 '문화유산 관람예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시행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가 감면됨에 따라 사찰을 찾는 관람객 수도 크게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관람객 증가에 비례해 관람 환경 악화와 국가유산 보존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교공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 지키기 △허용된 공간만 관람하기 △사찰 문화유산 만지거나 낙서 금지 △고성방가 금지 △사찰 내 흡연·음주·취식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람예절 홍보물(포스터·카드뉴스·인스타툰 등)을 〈국가유산사랑〉 11월호와 국가유산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 인근에서 T맵을 사용하는 차량이용자에게는 관람예절 안내 문구도 11월 20일까지 송출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자 종교공간으로서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에 '문화유산 관람예절 캠페인'을 운영하게 됐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찰이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할 국가유산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관람예절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일곱 법고' 법음으로 만나는 선명상

11월 30일, 경기아트센터서
종단협 7명 스님 법고 합주

법고의 진동을 따라 호흡을 가다듬으며 선명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과 만난다.

경기일보,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가 주최하고 법고보존회, MAKE WITH가 주관하는 '법음-일곱 법고 세상으로 나오다'가 11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번 공연의 핵심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7명의 스님이 참여하는 법고 합주다. 사찰 의식에서 쓰이는 법고를 무대 예술로 재구성해 관객이 울림을 직접 체감하도록 했다. 법고가 동시에 울리는 합주는 불교 의식에서는 드문 시도로,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포교 방식으로 기획됐다. 스님들은 법고 합주에 남북 평화와 사회 갈등 치유, 종교 간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법고 외에도 전통북춤, 전통북, 고구려북, 싱잉볼, 화관무, 판굿 등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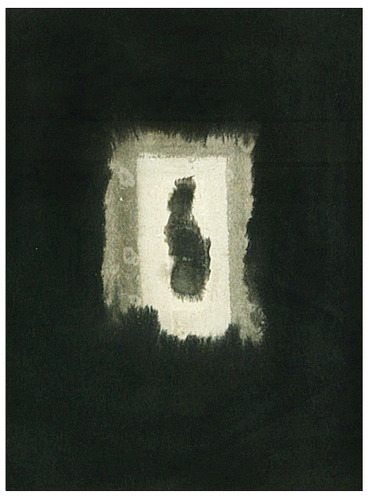
공연 중에는 '선명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관객은 북소리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선명상의 여정을 함께하며 무대 전체가 하나의 수행 공간으로 변할 예정이다.

김혜진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는 "공연 '법음'은 전통의 울림으로 관객에게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는 공연"이라며 "불교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한지·닥종이에 담아낸 사유의 궤적들

개관 18주년 영담한지미술관
'천 년의 숨결–닥종이 사랑'展


영담 스님의 작품 '어머니'.

한국 유일의 한지 전용 미술관인 경북 청도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 스님)이 개관 18주년을 맞아 '천 년의 숨결-닥종이 사랑' 전을 연다. 전시는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영담한지미술관은 한지와 닥종이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미술의 창작을 이어 왔으며,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예술을 기록해 온 한지를 오늘날 예술의 소재이자 조형의 매체로 새롭게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요 작가들이 한지와 닥종이의 본질적 미감을 새롭게 해석하며, 전통적인 재료가 가진 현대적 잠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다.

전시에는 정오 스님, 권지현, 김경미, 김영목, 오성만, 이건희, 재이, 전옥희, 정해경, 최한규 등 다수의 중진 및 신진 작가들이 참여한다. "한지의 기술적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 미술의 주요 표현 매체로써 한지와 닥종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보다 깊이 있는 자유와 확장성을 보여 줄 예정"이라는 게 미술관 측 설명이다.

이번 전시는 한지라는 오래된 재료가 지닌 가장 현대적인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관장 영담 스님은 "한지와 닥종이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재료이자 매체"라며 "이번 전시가 전통 재료의 확장성과 닥섬유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 전시 오프닝은 11월 19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최보결 춤의 학교에서 '마더스 프레즌트'를 축하 공연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출발일 : 2월11일~2월19일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1월23일 출발~2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월14일~21일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79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20일~4월06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